한국 경제, 올해 실질GDP '바닥'

예정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2%·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2%) 수준에 안착시키되 민간수요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1.4%) 대비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내년 전망(2.0%)도 정부(2.4%)나 한은·KDI(2.2%)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성장률이 2%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를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상회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외에 기타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의 총량(자본스톡)의 증가율 둔화로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로 노동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성장경로 상에서는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 효과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등도 약화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측면 중 노동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자본에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둔화될 위험에 놓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경로로 전환됐던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최근 경로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양자 간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 집행시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때 진행하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 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하락' 방향성을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의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처는 물가를 2% 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율,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 무 등 김장재료 할인판매를 오는 26일까지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10곳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장재료 특별 할인판매 실시

전북농협,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10곳 할인 행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 무 등 김장재료 할인판매를 오는 26일까지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10곳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판매되는 김장재료는 배추와 무·대파·고춧가루·생강·절임배추 등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신선한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직거래장터는 북전주농협, 완주 용진·삼례·이서농협, 남원농협, 동김제농협, 남부안농협, 정읍원예농협, 익산원예농협, 동군산농협 등 총 10곳에서 열리며 소비자가격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11월 22일, 김치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김치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함은 물론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출하처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중기부 공모사업 통해 지역 소상공인 600개사 지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1일 광주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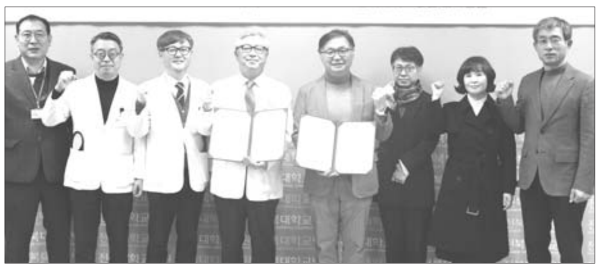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경진원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호남권역 전문운영기관으로 참여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컨설팅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는 경진원 등 호남권 전문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호남권 지식재산센터 관계자 및 소상공인 컨설턴트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올 한해 600여건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례 중 4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 담당 컨설턴트로 선정된 박민현, 안상봉, 장경수, 조문찬 컨설턴트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담당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높이 평가해 각 관할 운영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상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상(원장 이성희)을 수여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학교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전공의 파견 수련 모자병원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병원-군산의료원, 모자병원 협약

전공의 파견 수련·교육 등 상호 협력 다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북도 군산의료원과 전공의 파견 수련 모자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과 이식 진료부문 부원장 등과 군산의료원 조준필 의료원장 등 양 기관의 대표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전공의 파견 수련 △전공의 모집관리 및 교육 △의학정보 교환 및 시설이용 기회 제공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병원인 전북대병원은 자병원인 군산의료원에 정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파견하게 되며, 전공의 모집관리와 교육 외에도 의학정보 교환과 시설이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치업체 찾아

한국농협김치 전북지사서… "김장철 가격안정 노력해달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일 김치 업체를 찾아 김장철 업계 차원의 원가 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훈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농협김치 전북지사를 방문해 배추·무 등 김치 원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차관은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김치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김치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은 10월 하순 포기당 2815원에서 이달 중순 2215원으로 내려갔다. 전년과 비교하면 14.5% 높은 수준이지만 평년보다는 7.9% 낮다. 무와 깐마늘 도매가격도 각각 평년보다 32.7%, 2.3% 가격이 하락했다. 전년보다는 38.9%, 16.3% 싸졌다.

한 차관은 "매년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만큼 업계도 김치 원재료에 대한 자체 계약재배 및 비축 등을 활성화해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배추·무 등 원재료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진청, '양파 시들음병' 방제 농약 등록

농약 4품목 긴급 등록… 양파 기계화 걸림돌 '시들음병' 예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계를 이용해 양파를 아주심기(정식)할 때 육묘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들음병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기계를 이용한 양파의 아주심기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나 육묘 때부터 문제가 된 시들음병이 저장 중인 양파에도 피해를 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양파 육묘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양파 시들음병 방제 농약이 없어 함양 등 양파 주산지에서 농약 등록 요청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협업해 기존 농약 중에서 양파 시들음병 방제 후보 농약을 선발하고 농약 등록 시험을 거쳐 농약 4품목을 긴급 등록했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지난해 함양군 저장 양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들음병으로 인한 수확 양파의 부패율은 31.5%로 농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양파 시들음병 농약 4품목이 긴급 등록됨으로써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들음병을 예방해 안정적으로 양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